

1.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2005년 정기총회 개최

2005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동안 한일해협권연구기관 협의회2005년도 정기총회와 연구발표회가 한·일 연구기관의 대표자와 연구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하여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九十九島관광호텔(총회)과 하우스텐보스JR젠니쿠호텔(연구발표회)에서개최되었다.

親和經濟文化연구소가 주관하여 첫날 총회에서 2005년도 사업보고, 임원개선, 2006년도의 사업계획, 차기총회 개최지 결정, 해협권연구지 발간 등에 관한 협의를 이루어졌다.

차기총회 개최지로서는 울산광역시로 정하고 차기부회장단으로서 (재)울산발전연구원(원장 서근태)이 선출되었다.

이틀째 오전에는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는데, 초청강연으로는 마쯔무라(松村良幸)대마도 시장이 초빙되어 “대마시와 한국과의 교류에 관하여” 라는 주제강연에 이어 5개분야로 나뉘어 한일해협권에 있는 항만도시 상호의존도 실증연구발표, 양국연안의 도시계획 관광 등에 관한 연구발표와 종합 토론이 있었다.

오후에는 유람선으로 일본 “서해국립공원99도” (섬)관광과 네델란드風의 하우스텐보스 경관에 취하면서 한·일 양국간의 연구교류를 통하여 이해 증진의 전기를 마련하는 총회가 되었다.



2. 각 지역 뉴스



◆ 신키타큐슈공항 개항

키타큐슈시의 슈보나다 앞바다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신키타큐슈공항이 2006년 3월 16일 개항하였다. 활주로가 구공항의 1,600m로부터 2,500m로 확장되어 대형 비행기의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음문제가 없는 해상공항으로서의 심야운항도 가능하게 되어 편리성이 향상된 공항으로 새로 태어났다.

토쿄(하네다)편은 신규항공회사 스타후라이아가 참여하여 일본항공과 함께 1일 16편이 되는 한편, 새로운 노선으로서 나고야편(제이에어 1일 3편)과 오키나와편(일본트랜스 오션항공 1일 1편), 국제선으로서는 상하이편(중국동방항공 주3편)이 추가되었다. 토쿄가 1일 5편뿐이었던 구공항에 비하여 크게 증편되었다.

금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의 계절운항과 신규항공화물회사 갤럭시에어라인즈의 화물전용취항도 예정되어 있다. 공항의 이용시간도 8월부터 24시간으로 연장되었다.

근년 큐슈북부에서는 자동차산업, IC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공항의 개항으로 수도권과 아시아 시장과의 인적 물적 연계가 강화되어 다양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큐슈고속도로의 연장과 1일 최고 390엔의 값싼 주차장 등, 공항까지의 교통편의에 다양한 시책이 펼쳐졌지만 금후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및 IC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진흥과 발굴이 불가피하다. 스타후라이아 회사가 지역회사, 현, 시 등의 출자를 받아 신규참여를 실현한 것과 같이 지역관계자가 신공항을 어떻게 활용하여 발전시킬 것인가가 금후의 과제로 되어 있다.

◆ 큐슈북부 자동차생산 120만대 체제돌입

후쿠오카현은 2007년도를 목표로 「큐슈북부 자동차100만대 생산거점구상」을 수립하여 자동차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2005년도 큐슈 북부 자동차 생산대수가 89만대가 되어 100만대까지는 다음 한발의 수준에 있다. 그러나 생산능력으로서는 토요타 자동차큐슈와 다이하츠큐슈의 생산능력확대에 따라 2006년도중에 120만대를 초과할 전망이다. 게다가 토요타자동차큐슈는 엔진공장의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큐슈북부에 자동차산업의 집적으로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후쿠오카현은 자동차생산거점구상이 1년 앞당겨 실현되므로써 새로이 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후쿠오카 자동차산업 거점대책본부」를 신설하고, ① 생산목표 150만대, ② 지역내 부품조달율70% 달성, ③ 아시아속의 주력공장화, 부품산업의 거점화 등 최대 거점형성, ④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LSI 및 수소 에너지 등과의 연계 강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큐슈국립박물관 개관, 후쿠오카현 외부로부터의 경제파급효과 73억엔**

「일본문화의 형성을 아시아 사적시점에서 관찰」이라는 개념을 갖춘 큐슈지역 처음의 국립박물관이 2005년 10월 15일 다자이후시에 개관하였다. 도쿄, 나라, 교토에 이은 4번째의 국립박물관이다. 개관 반년만에 약130만명이 입장하는 등 당초 예정(반년만에 17만명)을 크게 넘는 입장객이 예상되고 있다. 입장객 앙케트에서는 입장객의 3할이 후쿠오카현 외부사람이었다.

입장객100만명의 시점에서 경제파급효과를 추산하면, 음식, 선물, 숙박, 교통비의 직접 효과외 호텔 및 음식업의 고용자소득증대 등 간접효과를 합치면 약73억엔이 후쿠오카현내에 파급된 것으로 추산된다(큐슈경제조사협회 시산).

다자이후시의 관광객수는 피크시 1992년에 비교하여 2004년에는 3할정도로 줄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박물관의 유치는 지역주민의 절실한 소원이었다. 다자이후시에서는 국립박물관을 핵으로 “다자이후시 전체를 박물관”으로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박물관 효과”를 어떻게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가 금후의 과제로 되어 있다.



◆ **혼합연료계획의 사전양해**

2006년 3월 26일 사가현과 켄카이쵸(사가현 히가시마쯔우라군)는 정부가 안전을 확약함으로써 큐슈전력에 대해 켄카이원자력발전소(사가현 히가시마쯔우라군 켄카이쵸 소재) 3호기의 혼합연료(plutonium+thermal)계획을 사전양해하였다. 사가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혼합연료를 도입하게 된다.

혼합연료계획은 2004년 5월 28일 큐슈전력이 정부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확보에 관한 협정 소위 「안전협정」에 근거하여 시기현과 켄카이쵸에 사전양해서를 제출하였었다.

사전양해서의 판단에 대해 사가현은 안전성확보가 대전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소재지인 켄카이쵸의 의향과 주변지역주민, 넓게는 사가현민의 이해와 현의회에서의 의론을 거쳐서 사가현이 종합적 판단을 하기로 하고 사가현 주체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6년 2월 7일 사가현은 정부에 의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과 큐슈전력에 의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3호기의 혼합연료계획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공표하고, 2006년 2월 20일 켄카이쵸의 사전양해로 2006년 2월 정기현의회에서는 혼합연료 계획에 대해 조건부로 추진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가현지사는 경제산업장관으로부터 안전확약을 얻어 낸 후에 최종판단하기로 되어 있다.

2006년 3월 26일 경제산업장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확약을 얻어 냄으로서 사가현과 켄카이쵸가 협의를 한 결과 사전양해를 하기로 하였다.

사용할 MOX연료의 발주, 가공, 운송과 정부에 의한 심사를 거치면 실제적으로 이동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전과정이 합격한다면 총연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8체의 MOX연료가 원자로에 사용되게 된다.

◆ 새로운 「이삼평 비석」 건립

한일 우정년을 기념하여 아리타 야키의 조상 이삼평씨를 추앙하는 새로운 비석이 사가현 니시마쯔우라군 아리타쵸의 스에야마신사(통칭 토잔신사)에 완성하고 2005년 7월 25일 제막식이 있었다.

새로운 비석은 산정상에 있던 이전 비석이 보이는 보도 옆에 세워져 있고 한일영의 3개국어로 비문이 새겨져 있다.

제막식에는 양국의 관계자 약30여명이 출석하였다. 재후쿠오카한국영사관의 김영소 총영사는 지금까지 역사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금후 더욱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아리타쵸의 행사를 환영하였다.

동위원회는 아리타도자기축제 기간중인 5월 4일 비석앞에서 도공제례를 개최하였다.

한일 양국민의 우호친선이 더욱 돈독해짐과 동시에 교류의 역사가 후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원하였다.



◆ 나가사키시에 대형시설의 연속개관

나가사키시에서 추진되고 있던 시설들이 2005년 연속개관되었다. 4월에 완공 개관한 건물로서는 나가사키항 「나가사키 미즈베니노모리 공원」의 일각에 건축된 「나가사키현 미술관」(부지 9,981㎡, 연면적 9,876㎡, 사업주체 나가사키현, 사업비 88억엔)으로 대형기획전 및 이벤트 개최, 여유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등 개관 1년간의 입장객수는 당초

목표의 1.6배인 61만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11월에는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부지 14,413㎡, 연면적13,309㎡, 사업주체 나가사키현 및 나가사키시, 사업비 80억엔)가 완공 개관되었다. 이것은 에도시대(17-19세기)의 나가사키 타치야마 관청을 복원한 건축물로서 박물관을 병설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및 관객참가형 촌극을 공연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가 응집된 전시와 연출이 평가되어, 입장객수는 초년도(5개월간) 목표의 1.9배인 30여만명을 넘었다.

위 양시설은 공공시설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지정관리제도」를 적용하여 전시와 영업 등의 각활동부문을 일체화하는 전략으로 효과적인 입장객유치활동을 전개하므로써 효과를 내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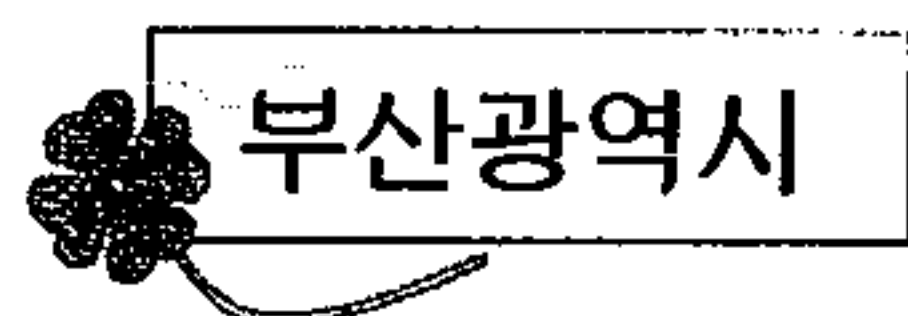
또한 12월에는 나가사키항구에 항구와 시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여신대교」(전장 1,289m, 해면으로부터의 높이 65m, 사업비 850억엔)가 완공되었다. 교통의 원활화와 함께 좋은 전망과 아름다운 풍경, 라이트 오프인 야경은 관광자원으로서도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매력이 더해진 나가사키시에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나가사키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여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마을걷기 박람회인 「나가사키산책박람회 2006」을 개최하여 매력 있는 관광지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 서해국립공원지정 50주년 전국에 선전

서해국립공원은 1955년 3월에 지정된 「외양성 다도해 경관」을 특색으로 하는 국립공원으로서 나가사키 북서부일대와 그 서쪽 해상에 있는 쿠주쿠시마(99섬)와 고토(5섬) 열도 등 크고 작은 섬 400여개로 되어 있다.

국립공원지정 50주년을 맞은 2005년은 사세보시를 중심으로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와 자연체험형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때마침 인기 있는 영화시리즈 「남시바보일기16」의 촬영장지정외에 「사세보 버거」등 자기지역산 음식에 인기와 주목이 많아진 일도 있어 쿠주쿠시마를 시작으로 자연경관과 자연환경 등 하우스텐보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매력을 전국에 알렸다. 그 결과 2005년 사세보시의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3%가 증가한441만명으로 3년만에 증가하였다.



◆ 부산지역 4개 관광권 테마별 특화

부산지역 관광권을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특화 개발

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釜山廣域市는 2005년 10월 잠정 확정된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을 통해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부산을 서부산권(북 사상 사하 강서구), 중부산내륙권(금정 동래 연제구), 중부산해양권(부산진 수영 남 동 중 서 영도구), 동부산권(기장군 해운대구)으로 나눠 동북아 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권역 가운데 서부산권은 울속도 생태공원과 부산신항만, 가덕도 해양관광 휴양지가 연계된 생태·산업관광권으로 조성되며, 중부산내륙권은 금정산성과 낙동강 민속어촌, 동래온천 등을 아우르는 역사·문화 관광권으로 탈바꿈한다. 또 중부산해양권은 제2롯데월드와 해륙종합터미널, UN평화공원 등을 한데 묶어 도심·항만관광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동부산권은 동부산관광단지과 해운대, 수영만요트경기장이 어우러진 해양·레저·영상관광권으로 특화된다.

◆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발표

15년 후 부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은 부산발전 밑그림이 완성됐다. 釜山廣域市는 2006년 1월 釜山廣域市와 부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안이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 안에 따르면, 釜山廣域市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부산을 국가남부권 경제 중추도시, 동북아 문화·과학 중심도시, 세계 자유무역 거점도시로 육성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釜山廣域市는 이를 위해 낙동강(항만 및 항공물류) 내륙(정보 및 금융·유통) 해양벨트(해양과학 및 관광·영상) 등 3개축을 중심으로 아시안 게이트웨이, 서부산, 국제자유도시, 문화도시, 도시재창조, U-CITY, 동부산프로젝트 등 7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대 월드이벤트로 2010년 유비쿼터스 세계박람회와 2020 부산하계올림픽 개최도 의욕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7대 과제 가운데 아시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북항 재개발을 계기로 도시와 항구, 철도가 일체화된 세계 유일의 해륙종합터미널을 짓는다는 복안이며, 도시전체를 유비쿼터스화 한다는 'U-시티 프로젝트'에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석대동에 이르는 55만평에 U-벨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釜山廣域市는 이와 함께 강서신도시와 낙동강 에코벨트 조성,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의 서부산 프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을 남부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동부산 프로젝트 수행으로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관광 및 영화·영상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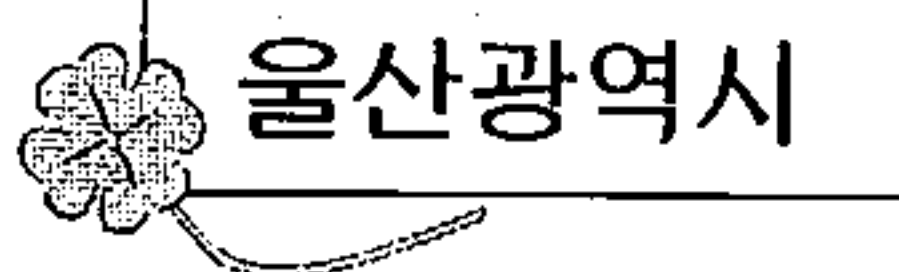
◆ 제3회 부산국제모터쇼 개최

부산모터쇼는 4월 28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5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모터쇼에는 국내 8개사와 수입차 17개사 등 25개 완성차 업체와 부품 및 용품업체 등 146개사 등 모두 10개국 171개 완성차 및 부품업체가 참가하여 벡스코 실내외 전시장 및 컨벤션홀 5만1천400㎡에 모두 1천712개 부스를 설치해 저마다의 기술력을 과시한다.

특히 전체 148대의 전시 차량 가운데 신차 16대가 국내 처음으로 공개되고 컨셉트 카도 12대가 참여하는 등 이전 제1,2회에 비해 수준이 크게 향상돼 명실상부한 국제 모터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됐다.

또 부대행사로 오는 5월 2~3일 열리는 자동차 부품 및 용품 수출상담회에 전세계 50여개국에서 193개 업체의 해외 바이어와 부산·울산·경남지역 200여개 업체를 포함, 전국의 250여개 부품·용품업체가 참가해 1천여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벌일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전망이다.



◆ 울산 '외고산 옹기 축제' 최우수 체험 축제

울산시 울주군의 '외고산옹기축제'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서 최우수 체험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울주군은 부산 해운대구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축제 박람회에서 '외고산옹기축제 홍보관'을 운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체험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재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머물러 있는 외고산옹기축제가 본 축제로 선정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울주군은 보고 있다.

축제 박람회 기간 울주군은 외고산옹기축제 홍보관을 설치, 직원과 안내도우미 등 12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옹기 제작과정 등 축제 관련 시연행사를 비롯, 전통몰래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실제 축제기간 총 12만5천여명이 찾는 등 옹기제작을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이 많았고 옹기축제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울산 고래도시 부활

울산시는 세계적인 선사시대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와 근대 풍경문화유적을 보유한 장생포의 명성 등 고래와 관련한 독점적인 자원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고래문화의 울산 브랜드화 계획’을 2010년까지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민자 등 총7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래를 이미지로 하는 감동 창출로 보고싶은 울산, 울산 방문자가 권유하는 찾고싶은 고래도시 울산으로 만들어 울산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고래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시는 고래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10만평 규모의 ‘고래공원’을 조성해 야외공연장, 만남의 창, 산책로, 고래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반구대 암각화 실물모형 설치, 고래영상 체험관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등 고래관광을 위해 아쿠아리움과 고래쇼장등의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울산앞바다의 관경(Whale Watching)을 위해 고래자원 서식지 조사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래를 이용한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 산업수도 울산 위상 재확인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대한 울산의 기여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22.5%를 기록, 대한민국 수출의 1등공신이라는 사실과 함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이 재삼 확인됐다.

울산은 또 지난 2000년 200억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05년 452억달러로 급신장하는 등 전체 수출증가의 1.7배에 이르는 급속한 성장세를 구가한데다 1인당 수출액과 업체당 수출액도 단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울산은 또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홍콩 등 5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해마다 낮아지면서 대륙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어 수출다변화 노력이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전남권

◆ ‘전남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 수립

전남도는 2천여 개에 달하는 아름다운 섬과 6,400여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선, 광활한 갯벌 등 비교우위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섬 관광개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전남 섬을 신안·영광지구(다이아몬드제도 클러스터), 진도·해남지구(조도 클러스터), 완도지구(보길도 클러스터), 여수·고흥지구(사도·낭도 클러스터) 등 4개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1차로 관광개발 여건이 뛰어난 40여개의 섬을 선정하여 올해 말부터 15개의 테마로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섬들이 군집한 신안·영광지구에는 다이아몬드제도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국립동물원과 마리나 시설 등이 집중 개발된다. 진도·해남의 조도 클러스터에는 비취색 바다와 섬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대와 해상케이블카, 해양테마파크 등이 설치된다. 완도 지구의 보길도 클러스터는 다양한 레포츠와 어촌의 독특한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강의 섬, 어촌체험의 섬 등이 개발된다. 여수·고흥지구 사도·낭도 클러스터는 신비로운 자연생태계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해 가족의 섬, 꽃섬, 생태의 섬이 개발된다. 이밖에 이순신 장군 전적지 관광자원화와 크루즈 운항, 섬 등산로 개설 등 다양한 섬 개발 계획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민간자본 7,944억원을 포함해 총 1조1,99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3조 8,801억원의 생산과급효과와 14만6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추진협의회’ 발족**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간 최상위 협의기구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동혁신도시 입지가 나주로 확정되고, 지난 1월 광주시와 전남도에 공동혁신도시 건설 전담조직이 각각 구성된 데 이어 추진협의회가 발족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추진협의회에는 시장, 도지사, 이전 공공기관 대표, 시·도에서 추천한 각계인사 등 54명이 참여하며, 3년 임기로 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지구지정, 기본계획 등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발족식에서는 시·도지사와 한국토지공사 사장간 혁신도시건설사업 시행협약이 전국에서 처음 체결되었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시·도지사와 나주시장간 성과공유협약도 체결되었다.

향후 시·도는 오는 6월까지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9월까지 공동혁신도시 지구지정 작업을 마친 뒤 내년 11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내년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 2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광주·전남에 배정된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과 인구 5만명이 들어서는 자족형 혁신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 구 도지사 공관 미술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

구 전남지사 공관이 미술테마공원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서구 농성동 구 전남지사 공관 일대를 미술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구 공관을 광주 시립미술관 제2분관으로 리모델링해 올해 상반기 안에 개관할 예정이다. 1·2층에는 사무실과 전시공간 등을 갖추게 되며, 공관 부지에는 휴게실, 산책로, 광장 등도 조성되어 문화와 휴식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982년에 총부지 5,483평에 연면적 528평,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구 전남지사 공관은 1층은 회의장으로 2층은 연회장으로 쓰이다가 문민정부 이후 전남 도립 극단 공연장으로 활용됐다. 이후 전남도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아파트 부지로 매각했으나 광주시는 도심내 녹색공간 확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의 보존 요구를 받아들여 2004년 7월 부지를 사들인 뒤 『남도소리 실내 소리당』으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결국 이 부지는 아파트, 실내 소리당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된 끝에 미술 공원으로 바뀌게 됐다.

◆ ‘광주디자인센터’ 개원

국토 서남권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이끌 핵심 기반시설이며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서 랜드마크가 될 광주디자인센터가 북구 오룡동 첨단단지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차세대 성장산업인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250억, 시비 250억)을 들여 첨단 단지 내 1만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5,259평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였다.

디자인센터에는 전시장, 디자인 체험관, 이벤트홀 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디자인 관련 장비지원센터, 임대사무실, 창업보육센터 등도 확보해 지역 중소 디자인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지역디자인센터(RDC)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부산 등에 앞서 전국 최초로 개원하는 것으로 디자인 기업 지원 및 육성, 기업맞춤형 디자인 인재 양성, 지역 특화 디자인 연구개발, 디자인 대중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연구·생산·소비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디자인 비즈니스 콤플렉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디자인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경상남도는 현재 부산광역시·전라남도과 연계하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 부산, 그리고 전남 3개 시도가 하나 되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지역간 상호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 주도형 지역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국가 내부적으로는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이중화된 국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환남해국토축”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분산형 국토구조를 완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경제지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본·중국의 지역경제권과 상호경쟁할 수 있는 “남해안해양경제권”을 구축하여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국가성장의 새로운 발원지로 육성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남해안을 부산전남·경남의 3개 시도가 함께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국가성장동력의 발원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국가성장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남해안시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전은 경제와 삶의 질 그리고 문화 융합이 조화를 이루는 “SEATOPIA in Asia”이며,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① 투톱 (Two-top) 혁신클러스터 육성, ② SEATOPIA 어메니티 업그레이드, ③ Seaport city 조성, ④ Green&Blue 산업혁신단지 조성, ⑤ A·R·T (Airport·Road·Train) 인프라 구축, ⑥ SEATOPIA 마케팅 등 6가지의 주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현재 3개 시도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경남FC 창단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이 2006년 1월 17일저녁 창원경분장에서 창단식을 갖고 K리그 14번째 구단으로 출범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도민주주들을 비롯 구단주인 김태호 지사·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장원갑 STX 부회장이순복 경남신문 대표이사 회장 등 기관 단체장과 축구팬과 구단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석해 경남FC 창단의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보았다. 경남FC의 창단은 축구동호인들은 물론 경남도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경남도민은 지난해 11월 한달도 안되는 짧은 도민주 공모기간 동안 총3만9천 87건에 77억8천900여만원을 청약해 창단에 힘을 보태면서, 지역의 프로 축구단의 창단에 많은 호응을 보내었다. 경남FC는 현재 월드컵 4강의 주역인 박항서 감독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청소년대표 감독을 역임한 윤덕여 수석코치·하석주 코치·신의손 GK코치 등의

코칭스태프와 국가대표 출신의 공격수 김진용과 신병호·브라질 출신의 루시아노 등 안정된 공격진을 갖추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구단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경기력 향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05년 1월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제주는 국가 차원에서 지정한 세계 최초의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노 대통령은 서명 후 “제주평화의 섬을 통해 한국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 며 “동북아 평화기지 거점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선언문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 △국가간 자유로운 교류·협력이 이뤄지는 국제자유도시 육성 △제주도에서 평화 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 실천 사업의 적극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도시는 제네바처럼 자연스럽게 공인받거나 일본이 히로시마와 오키나와, 독일의 오스나브뤽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가차원에서 공식 지정된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그동안 수많은 정상회담과 평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제주는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완충센터로 거듭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국제 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번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4.3사건 등 근·현대사에서 뼈아픈 상처를 지닌 '변방의 섬' 제주가 동북아의 평화 공존을 창출하는 평화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주민항 공식 출범

지역항공사인 (주)제주항공이 2005년 8월 2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은 '제3민항'으로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각 50억원과 150억원을 출자해 합작으로 설립한 제주항공은 내년 6월 제주~김포 노선에 첫 취항할 예정이며, 항공료를 기존 항공사 요금의 70% 선으로 책정해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가격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국내선에 이어 일본, 중국, 타이완 등 단거리 국제노선 취항도 계획하고 있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가 양분해 왔던 국내 항공시장에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한해 제주사회의 최대 화두로 손꼽힌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연방주에 가까운 시범자치도 구상'에서 출발, 2년여 만에 그 청사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005년 5월20일 정부 기본구상안 확정·발표와 국무총리실 산하 추진기획단 설치, 10월 14일 정부 기본계획안 확정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본 틀을 수립하였고 연내에 관련 특별법을 입안-제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규제에 대해 폭 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특별자치 지역을 의미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 자치권을 갖는 자치도시로서의 권한과 위상에 대한 특례와 이상적 자유 시장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을 마련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6년 7월부터 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3. 제14회 한·일 해협연안시도현지사 교류회의 개최

제14회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 교류회의가 2005년 11월 1일(화) 일본후쿠오카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일본측의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찌현의 4지사 와 한국측에서는 전남, 경남도지사 와 제주도 부지사, 부산광역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시도현 지사 및 시장의 의견발표, 후쿠오카현 주민과 한국측 지사 및 시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에 의한 의견교환, 각 시도현의 지사 및 시장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공동성명에는 방재(防災)교류사업을 새로운 교류사업으로 채택하고, 제1회 실무자회의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한일만화페스티벌을 2007년에 후쿠오카현에서, 2008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8개항목에 합의하여 발표되었다.

또한 2006년의 한일해협연안시도지사교류회의는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폐회하였다.

공 동 성 명 문

우리는 일본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찌현 및 한국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대표하여 2005년 11월 1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제14회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금차회의에서는 8개 시도현이 “한일우정 2005”를 추진하기 위하여 함께 해온 공동교류사업의 성과라든가 금후의 교류사업의 전망에 관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금차의 지사회의에서는 미래를 향하여 한일해협권의 보다나은 공동발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사항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1. “한일우정 2005”를 추진하기 위하여 8개 시도현이 “주민친선이벤트사업”이나 “청소년교류사업”을 더할 나위없는 초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일로서 평가함.
2. 한일양국 간 가일층의 상호이해와 교류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일양국의 미래를 짚어질 차세대간 교류를 한일해협권에서 한층 더 추진하여 나아감.
3. 이전회의 및 금번회의에서 제안된 “방재(防災)교류사업”에 관하여 신규교류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제1회 실무자회의를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병행하여 감염증(感染症)등의 정보를 신속히 교환함.

4. “著者문화의교류”를 추진사업으로 하고 이를 위한 한일만화페스티벌을 2007년에 후쿠오카현에서 개최하고, 2008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함.
5. 이번회의에서 제안된 바이오 분야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교류” “친환경농업교류”를 신규사업으로서 이의 추진방법에 관하여는 실무회의에서 금후 협의한다. 또한 광역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영상(映像)을 활용한 교류를 검토함.
6. 금후, 한일해협연안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지역축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노력함. 이의 일환으로서 2006년 야마구찌현에서 개최되는 제 21회 국민문화제의 “동아시아문화제전”에서의 “주민친선이벤트사업”으로서 민속예능을 통한 교류를 실시한다. 또한 2007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도시자치체연합(UCLG)세계총회”에 8개 시도현이 참가하여 지자체가 공동 발전하는 방안을 도모함.
7.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항구적인 비자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추진하여 나아감.
8. 차기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는 2006년에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개최함.

이상 우리는 한일해협권의 공통의 이익을 인식하여 본 지사회의가 금후에도 한일의 지역간 교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여 나아 갈 것을 확인하였음.

2005년 11월 1일

福岡縣知事	麻生 渡	釜山廣域市長	許 南 植
佐賀縣知事	古川 康	全羅南道知事	朴 峻 瑩
長崎縣知事	金子原二郎	慶尙南道知事	金 台 鎬
山口縣知事	二井 關成	濟州道 知事	金 泰 煥

Ⅲ. 본 협의회 연혁

